

U, Our Star!

★ 그대,
서울과 시대를 밝히는
별이 되어라!



Uni versity Of Seoul

www.uos.ac.kr



UOS
MAGAZINE



U, Our Star!

그대,
서울과 시대를 밝히는
별이 되어라!



시대정신과 시민정신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
- 끊임없이 혁신하는 창의적 인재
- 배려하고 소통하는 인재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따뜻한 나눔활동

- 서울시민, 서울시와 함께하는 나눔
- 구성원들의 발전과 연계한 나눔
-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나눔

미래를 선도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 연구

- 미래를 개척하는 세계 수준의 선도적 연구
-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융복합 연구
- 경쟁력 있는 연구환경 조성



CONTENTS

2024학년도 입학전형 주요 사항	04
2024학년도 수시모집 안내	06
2022학년도 입학전형 운영결과 안내	09
학과별 진로 인터뷰	12
합격수기	14

서울시립대학교의 전형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수시

모집구분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요소
		2023	2024	
정원내	논술	77	75	논술 70 학생부교과 30
	지역균형선발	196	230	학생부교과 100 수능최저학력기준 있음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 I	373	368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 면접 40
	학생부종합 II	80	80	서류 100
	기회균형 I	143	143	1단계 서류 100
	사회공헌·통합	34	34	2단계 1단계 성적 60 면접 40
실기	36	8	음악학과(성악, 피아노) 학생부교과 10 실기 90	
소계		939	938	



정시

모집구분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요소
		2023	2024	
정원내	일반	705	682	인문자연계열 수능 100
		88	116	예체능계열 모집단위별 전형 요소 반영 상이
기회균형 II (정원외)	농어촌학생	34	34	수능 100
	특성화고졸업자	25	2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3	33	
	장애인 등 대상자	10	10	
	소계	895	900	

- 수험생의 안정적인 입시준비를 위해 전년도 입학전형 기초 유지하며 소폭 개선
- 수시:정시 비율 51:49 유지(정시 수능위주 40% 이상)
- 지역균형선발전형 지원자격 변경 및 “학교장 추천인원” 확대 (고교별 8명 이내 → 10명 이내)
- 고른기회전형 → 기회균형전형으로 전형명 변경
- 디자인학과 수시 → 정시 모집시기 및 전형방법 변경

2024학년도 수시모집 안내

개요

2024학년도 수시모집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모집단위	계	1,735	75	230	정원내					수시모집 합계 (정원내)	
					논술위주 논술전형	학생부(교과) 위주 지역균형 선발전형	학생부(종합) 위주				실기/실적 위주 실기전형
							학생부종합전형 I	II	기회균형 전형 I		
	계	1,735	75	230	368	80	143	34	7	938	
행정학과	인문	77	-	13	22	-	8	1	-	44	
국제관계학과	인문	41	-	5	14	6	5	1	-	31	
경제학부	인문	86	-	12	25	-	9	1	-	47	
사회복지학과	인문	38	-	7	11	-	4	1	-	23	
세무학과	인문	65	-	11	19	-	7	1	-	38	
경영학부	인문	210	-	34	-	71	23	1	-	129	
영어영문학과#	인문	36	-	5	13	-	2	1	-	21	
국어국문학과	인문	26	-	3	9	-	2	1	-	15	
국사학과	인문	24	-	4	8	-	1	1	-	14	
철학과#	인문	24	-	3	9	-	1	1	-	14	
중국어문화학과	인문	24	-	3	10	-	1	1	-	15	
도시행정학과	인문	38	-	7	11	-	4	1	-	23	
도시사회학과	인문	35	-	4	10	3	4	1	-	22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자연	144	19	17	15	-	15	1	-	67	
화학공학과	자연	48	-	9	14	-	4	1	-	28	
기계정보공학과	자연	38	3	6	10	-	3	1	-	23	
신소재공학과	자연	38	3	5	7	-	4	1	-	20	
토목공학과	자연	38	5	5	7	-	3	1	-	21	
컴퓨터과학부	자연	58	8	9	11	-	5	1	-	34	
인공지능학과	자연	20	-	2	4	-	1	1	-	8	
수학과	자연	38	7	7	5	-	3	1	-	23	
통계학과	자연	29	-	5	9	-	2	1	-	17	
물리학과	자연	28	4	4	5	-	2	1	-	16	
생명과학과	자연	36	4	5	9	-	3	1	-	22	
환경원예학과	자연	29	-	4	9	-	2	1	-	16	
융합응용화학과	자연	20	-	3	7	-	1	1	-	12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자연	38	5	5	8	-	3	1	-	22	
건축학부(건축학전공)	자연	38	-	4	16	-	3	1	-	24	
도시공학과	자연	26	-	3	10	-	2	1	-	16	
교통공학과	자연	24	3	3	3	-	1	1	-	11	
조경학과	자연	28	-	4	9	-	2	1	-	16	
환경공학부	자연	75	10	10	16	-	7	1	-	44	
공간정보공학과	자연	29	4	4	6	-	2	1	-	17	
자유전공학부	자연	38	-	5	-	-	4	1	-	10	
국사학-도시역사경관학전공	인문	2	-	-	2	-	-	-	-	2	
국제관계학-빅데이터분석학전공	인문	4	-	-	4	-	-	-	-	4	
도시사회학-국제도시개발학전공	인문	3	-	-	3	-	-	-	-	3	
철학-동아시아문화학전공	인문	2	-	-	2	-	-	-	-	2	
도시공학-도시부동산기획경영학전공	자연	2	-	-	2	-	-	-	-	2	
도시공학-국제도시개발학전공	자연	2	-	-	2	-	-	-	-	2	
물리학-나노반도체물리학	자연	2	-	-	2	-	-	-	-	2	
조경-환경생태도시학	자연	2	-	-	2	-	-	-	-	2	
음악학과	예체능	29	-	-	-	-	-	-	8	8	
디자인학과(시각디자인전공)	예체능	14	-	-	-	-	-	-	-	-	
디자인학과(산업디자인전공)	예체능	15	-	-	-	-	-	-	-	-	
환경조각학과	예체능	36	-	-	-	-	-	-	-	-	
스포츠과학과	예체능	38	-	-	8	-	-	-	-	8	

- 2024학년도 모집인원에는 2022학년도 이월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학정원 조정 등에 따라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이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시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의 일반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영역

- 서울시립대학교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대학 비전의 3대 축인 교육, 연구, 봉사에 조응함
- 공공성에 기반, 학업역량, 잠재역량, 사회역량으로 선발함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학업역량	고교 기초 학업 능력	대학 학업 수행의 기초가 되는 고등학교 교과 학업성취도
	대학 전공 기초 소양	고교생활을 통해 진로 및 전공분야 탐구에 대하여 학습한 경험 및 교육활동 실적
잠재역량	다학제적 전공수학 열의	지원동기·학업계획과 관련된 교과 및 비교과 활동내용 간의 연계성 및 심화학습 수준
	통합적인 문제해결 역량	전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탐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경험 및 활동실적
사회역량	공동체 및 시민윤리의식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개인의 유익보다 공공의 이익과 공적윤리를 중시하는 태도와 행위
	협동학습능력	타인과 협력함으로써 결여된 것을 보완하여 성과를 산출하는 팀워크

※ 위 평가사항을 기준으로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를 실시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선발방법

학생부종합전형 I, 기회균형전형 I, 사회공헌·통합전형

구분	서류평가	면접평가	계
1단계(3~4배수)	100%(600점)	-	100%(600점)
2단계	60%(600점)	40%(400점)	100%(1,000점)

학생부종합전형 II

구분	서류평가	계
일괄합산	100%(1,000점)	100%(1,000점)

1 단계

서류평가를 통해 모집인원의 3~4배수를 2단계 면접평가 대상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시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지원자의 학업역량, 잠재역량, 사회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제출서류의 대필, 허위사실 기재 및 부정한 방법 확인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입학 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명, 고교유형 등의 신상정보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이외에도 지원자와 관련한 신상 요소(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가족환경, 종교 등) 또한 편견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평가 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추가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서류 요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단계

서류평가 점수와 면접평가 점수를 합한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

- 면접평가는 모집단위별로 진행되며 2인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학업역량, 잠재역량, 사회역량을 중심으로 지원자의 종합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공적윤리의식, 제출서류의 진실성 등을 평가합니다.
- 면접평가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명 등의 신상정보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됩니다.(출신고교를 유추할 수 있는 교복 착용 금지)
- 면접평가 대상자가 면접고사에 결시할 경우 서류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 면접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하일 경우 모집인원과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자기소개서 등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서류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2022학년도 입학전형 운영결과 안내



서울시립대학교 지역균형선발전형 선발결과

모집단위	학생부교과(지역균형선발전형)							
	모집인원	경쟁률	총원인원	대학별합산		최고점(만점)	최종등록자 학생부 교과성적 (환산등급)	
				환산점수	50%cut		70%cut	50%cut
행정학과	9	19.89	9	977.99	974.67	1,000	1.97	1.97
국제관계학과	5	29.40	2	978.72	971.62	1,000	2.00	2.12
경제학부	11	21.00	11	973.54	971.12	1,000	2.18	2.19
사회복지학과	5	19.40	5	963.44	962.77	1,000	2.24	2.14
세무학과	8	15.50	8	983.66	983.22	1,000	1.72	1.76
경영학부	26	22.38	23	978.64	975.98	1,000	1.94	2.03
영어영문학과	4	24.25	3	966.25	950.18	1,000	2.22	2.61
국어국문학과	3	16.00	2	<선발인원 3명 이하>		1,000	<선발인원 3명 이하>	
국사학과	3	17.33	3	<선발인원 3명 이하>		1,000	<선발인원 3명 이하>	
철학과	3	17.00	2	<선발인원 3명 이하>		1,000	<선발인원 3명 이하>	
중국어문화학과	3	19.00	2	<선발인원 3명 이하>		1,000	<선발인원 3명 이하>	
도시행정학과	5	18.80	5	972.34	971.50	1,000	2.12	2.12
도시사회학과	4	18.25	4	974.58	968.36	1,000	1.86	2.06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18	20.28	14	981.38	978.43	1,000	1.84	1.77
화학공학과	6	28.67	6	983.88	983.25	1,000	1.71	1.74
기계정보공학과	5	15.00	4	979.52	979.17	1,000	1.91	1.91
신소재공학과	5	16.60	2	986.03	979.80	1,000	1.68	1.93
토목공학과	5	10.20	4	960.83	957.07	1,000	2.41	2.24
컴퓨터과학부	7	21.71	6	984.99	984.29	1,000	1.71	1.71
인공지능학과	2	14.50	-	<선발인원 3명 이하>		1,000	<선발인원 3명 이하>	
수학과	5	10.00	3	975.13	975.00	1,000	2.10	2.03
통계학과	4	12.25	4	972.13	969.18	1,000	2.07	2.19
물리학과	3	10.67	1	<선발인원 3명 이하>		1,000	<선발인원 3명 이하>	
생명과학과	4	18.25	3	984.92	981.44	1,000	1.56	1.80
환경원예학과	4	10.00	1	974.83	969.85	1,000	2.03	2.15
융합응용화학과	4	15.00	3	<선발인원 3명 이하>		1,000	<선발인원 3명 이하>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5	10.60	4	973.26	970.52	1,000	2.14	2.14
건축학부(건축학전공)	5	11.00	5	960.36	952.35	1,000	2.41	2.63
도시공학과	3	11.67	2	<선발인원 3명 이하>		1,000	<선발인원 3명 이하>	
교통공학과	3	9.67	1	<선발인원 3명 이하>		1,000	<선발인원 3명 이하>	
조경학과	3	8.33	2	<선발인원 3명 이하>		1,000	<선발인원 3명 이하>	
환경공학부	9	12.22	7	973.96	972.72	1,000	2.10	2.19
공간정보공학과	4	11.25	-	966.91	965.62	1,000	2.28	2.32
자유전공학부	5	20.00	5	970.57	968.88	1,000	2.18	2.12

※ 모집 단위별 최종 선발 인원이 소수인 경우(선발인원 3명 이하) 환산점수 및 등급 미공개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선발결과

모집단위	학생부종합전형						산출 반영 교과목
	모집인원	경쟁률	총원인원	최종등록자 학생부 교과성적 환산등급			
				50%cut	70%cut		
행정학과	24	10.42 : 1	10	2.35	2.51	전과목	
국제관계학과	16	24.63 : 1	7	3.88	4.31	전과목	
경제학부	26	10.46 : 1	12	4.04	4.53	전과목	
사회복지학과	10	25.80 : 1	2	4.11	4.65	전과목	
세무학과	20	6.05 : 1	4	2.45	2.93	전과목	
경영학부	82	10.95 : 1	40	2.32	3.51	전과목	
영어영문학과	13	17.31 : 1	1	4.07	4.45	전과목	
국어국문학과	8	10.75 : 1	3	3.47	4.29	전과목	
국사학과	8	14.38 : 1	4	2.84	2.89	전과목	
철학과	8	9.63 : 1	5	4.18	4.58	전과목	
중국어문화학과	8	11.38 : 1	4	3.79	3.88	전과목	
도시행정학과	11	8.64 : 1	1	2.28	3.44	전과목	
도시사회학과	10	11.50 : 1	5	2.47	2.54	전과목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15	23.00 : 1	3	2.27	2.66	전과목	
화학공학과	15	21.93 : 1	10	2.51	3.48	전과목	
기계정보공학과	9	27.67 : 1	6	2.79	3.55	전과목	
신소재공학과	6	24.67 : 1	1	1.86	2.36	전과목	
토목공학과	7	8.71 : 1	2	4.69	6.24	전과목	
컴퓨터과학부	11	33.55 : 1	5	2.03	2.26	전과목	
인공지능학과	4	19.50 : 1	2	2.09	2.23	전과목	
수학과	6	16.00 : 1	3	2.28	2.32	전과목	
통계학과	9	11.22 : 1	5	2.34	2.51	전과목	
물리학과	5	12.20 : 1	1	-	-	전과목	
생명과학과	8	48.00 : 1	2	1.74	1.88	전과목	
환경원예학과	10	17.70 : 1	2	3.09	3.88	전과목	
융합응용화학과	6	21.50 : 1	1	2.10	2.71	전과목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8	10.38 : 1	2	2.43	2.56	전과목	
건축학부(건축학전공)	12	18.58 : 1	5	2.15	2.22	전과목	
도시공학과	12	7.33 : 1	6	2.43	2.53	전과목	
교통공학과	5	7.00 : 1	2	2.79	2.97	전과목	
조경학과	9	9.22 : 1	1	2.42	2.60	전과목	
환경공학부	14	16.93 : 1	5	2.10	2.15	전과목	
공간정보공학과	5	8.60 : 1	-	4.43	6.10	전과목	
국사학-도시역사경관학전공	2	11.00 : 1	-	-	-	전과목	
국제관계학-빅데이터분석학전공	4	11.75 : 1	3	2.29	2.54	전과목	
도시사회학-국제도시개발학전공	3	12.67 : 1	-	-	-	전과목	
철학-동아시아문화학전공	2	9.50 : 1	1	-	-	전과목	
도시공학-도시부동산기획경영학전공	2	8.50 : 1	-	-	-	전과목	
도시공학-국제도시개발학전공	2	7.00 : 1	1	-	-	전과목	
물리학-나노반도체물리학	2	12.50 : 1	1	-	-	전과목	
생명과학-빅데이터분석학	2	25.50 : 1	-	-	-	전과목	
조경-환경생태도시학	2	21.00 : 1	-	-	-	전과목	

서울시립대학교 수능위주전형(정시) 선발결과

모집단위	모집인원	경쟁률	총원인원	최종등록자 대학별 환산점수		최종등록자 영역별 70% cut				
				70% cut	최고점 (수능)	국어	수학	탐구	평균	영어
도시행정학과	22	6.23 : 1	13	908.91	1,000	93	90	73	86.8	2
인공지능학과	12	8.92 : 1	17	920.75	1,000	87	95	82	89.8	2
자유전공학부	29	5.21 : 1	21	909.67	1,000	94	90	75	88	2
스포츠과학과	35	2.57 : 1	4	416.02	500	75	70	-	74	3
행정학과	35	4.11 : 1	14	908.80	1,000	93	88	83.5	89.3	3
국제관계학과	16	4.47 : 1	6	904.35	1,000	95	87	77	87.7	3
경제학부	41	4.07 : 1	23	909.59	1,000	89	92	69.5	85	3
사회복지학과	20	4.45 : 1	3	900.4	1,000	92	88	77.5	86.7	2
세무학과	30	3.79 : 1	12	917.73	1,000	94	95	70	86.7	2
경영학부	78	4.21 : 1	57	909.04	1,000	91	92	69.5	85.7	2
영어영문학과	24	5.17 : 1	10	899.81	1,000	92	87	78.5	86.8	2
국어국문학과	13	5.08 : 1	5	898.23	1,000	92	88	72	85.3	3
국사학과	11	4.64 : 1	4	896.76	1,000	89	87	66.5	84.2	3
철학과	11	4.27 : 1	7	898.83	1,000	95	86	74.5	85.8	3
중국어문화학과	11	4.73 : 1	4	896.55	1,000	88	88	77	86	3
도시사회학과	17	4.44 : 1	11	904.57	1,000	93	88	78.5	87.8	3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82	4.47 : 1	61	923.38	1,000	84	96	84.5	89.3	2
화학공학과	22	3.95 : 1	10	921.21	1,000	85	96	84.5	88.8	2
기계정보공학과	18	4.50 : 1	7	920.8	1,000	87	96	85.5	90	2
신소재공학과	21	4.62 : 1	6	919.33	1,000	88	95	86.5	90.8	2
토목공학과	18	4.17 : 1	3	909.5	1,000	87	92	85.5	89	3
컴퓨터과학부	27	5.11 : 1	22	923.26	1,000	88	96	82.5	90	3
수학과	15	3.87 : 1	4	916.63	1,000	78	96	82.5	85.3	3
통계학과	13	4.38 : 1	3	920.04	1,000	84	96	87.5	89.7	3
물리학과	16	3.38 : 1	4	912.98	1,000	78	95	85	88.3	3
생명과학과	19	4.11 : 1	10	906.67	1,000	84	90	85.5	87.7	2
환경원예학과	12	4.25 : 1	5	903	1,000	75	92	84	86.5	3
융합응용화학과	10	4.30 : 1	5	916.24	1,000	91	92	85.5	91.2	2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17	3.88 : 1	8	909.77	1,000	82	95	86.5	88.3	3
건축학부(건축학전공)	17	4.53 : 1	15	909.25	1,000	87	92	82.5	88.7	2
도시공학과	10	5.00 : 1	4	917.46	1,000	91	95	87	90	2
교통공학과	12	3.75 : 1	1	909.5	1,000	85	94	84	86.7	2
조경학과	14	4.00 : 1	4	904.5	1,000	82	91	85	87.7	2
환경공학부	35	3.49 : 1	13	909.02	1,000	82	95	85	86.8	3
공간정보공학과	14	3.46 : 1	3	915.84	1,000	84	96	82.5	88.3	2

※ 탐구영역의 경우, 2개 과목의 평균값으로 산출

정경대학 사회복지학과
17학번 졸업생

박현진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자

1 사회복지에는 다양한 관련 분야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아동복지/청소년 복지/장애인 복지/교정 사회복지/학교 사회복지/의료 사회복지 등) 대학교 입학 당시 사회복지 관련 다양한 분야 중에서 어떤 복지에 가장 관심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 이유도 말씀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아동복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진 선생님을 만났어요. 프로그램도 너무 재미있었지만, 그 사회복지사 분이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잘 챙겨주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고, 참여한 입장에서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도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아동복지 분야에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저 스스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아동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앞서 답변 받은 책 이외에도 해당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도서가 있을까요?

책도 좋지만, 저는 사회 분야의 글이나 뉴스를 꾸준히 읽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복지를 행하는 주체가 정말 많아지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굴되고 그에 따른 많은 대응들이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꾸준히 보면 최근 동향 파악도 되고, 학생분들도 본인의 관심분야와 진로에 대한 생각을 더욱 잘 심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취업준비를 할 때 '오렌지레터'라는 소셜 섹터의 레터링 조선일보의 '더나은미래', 베이비뉴스를 수시로 들어가서 읽었는데 제가 관심 있는 전공분야라서 글도 재미있게 읽고 전공에 대한 시야도 많이 넓힐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OTT가 활성화되면서 구독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뉴스도 하나 구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입학 전에 읽으셨던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전공과 관련된 책이 있을까요? 해당 서적을 읽고 난 뒤의 간단한 소감이나 해프닝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입학 전에 '서울, 복지에 미치다'라는 우리 학교 이성규 교수님의 책을 읽었는데, 서울이라는 지역사회 안에 필요한 복지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상하고 실행하는 과정들이 담긴 책이었어요.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을 때에는 저도 '사회복지=봉사'라는 프레임이 강했었는데, 사회복지가 봉사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사회복지사의 새로운 직무와 사업, 행정 등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저도 원래부터 무언가를 기획하고 직접 실천하는 과정들을 좋아해서 이후에 사회복지 전공으로의 진학 욕구가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 당시에는 굉장히 열정이 넘쳤던지라 이런 내용을 지원동기로 말씀드리면서 저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제 진로 방향이랑 의지를 보여드렸었습니다. 물론 그 책을 읽었다는 이유나 동기가 무엇이냐는 이유만으로 합격한 것은 아니겠지만 고교생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이라는 개념을 제가 잘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면접관에게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4 대학생활 중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하여 여러 대외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셨는데, 이러한 대외활동을 어떻게 아시고 참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외부 대외활동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이 하는 활동을 따라 참여하기도 하고, 학교 건물 안에 붙은 포스터를 보고도 많이 지원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활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대외활동을 하실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꼭 사회복지가 아니라도 관심있는 분야 관련 활동의 참여자를 모집한다면 한번쯤 참여해보시면 좋을거예요. 저는 기업에서 하는 대학생 동아리 활동을 몇 가지 했었는데, 기업의 사회공헌에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CSR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활동이 그 대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CSR이나 NGO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립하도록 돕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큰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5 4학년 때 사회현장실습을 진행하셨는데, 실습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또한, 실습 과정에서 본인이 느꼈던 사회복지와 관련된 책무(민감성, 책임성 등)가 있을까요?

사회복지학과 4학년 과정에 사회복지실습이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복지시설에서 실습을 진행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굿네이버스라는 NGO단체에서 실습을 했고, 한 달 동안 기관 직원분들에게 직무 관련 교육을 받고 프로그램 기획이나 사례개입계획 수립 같은 것들을 해서 실제 실무자들의 업무를 체험했었습니다. 확실히 실습은 이론 수업과는 달라서 현장감도 느껴지고,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의 소명의식이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이 실습 이후에 사회복지 현장직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책무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NGO단체에서 실습을 진행한 터라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립하도록 돕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이상적이긴 하지만 모두가 기본적인 삶은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갖는 사명감과 가치관인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사회복지 현장직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든 나머지 의욕 소진도 금방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버티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주변의 지지나 긍정적인 성공 경험도 힘이 될 수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업무에 대해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다면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스스로 찾은 사회복지의 사명감과 가치가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스스로를 버티게 지탱해주는 가장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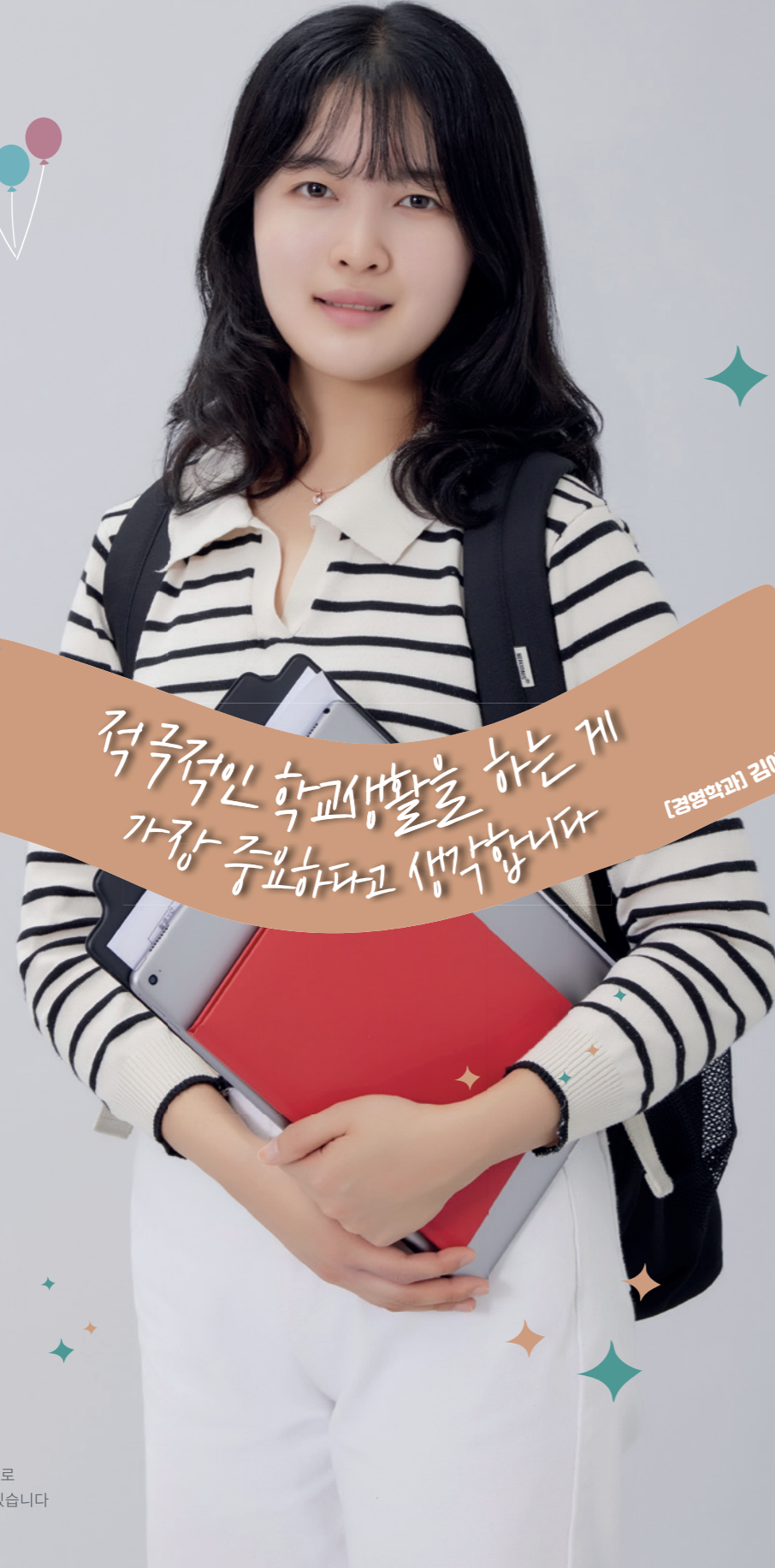
6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 느낀 흥미가 사회복지 현장직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하셨는데, 선배님이 느끼신 사회복지학만의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제가 느낀 사회복지의 매력은 **다양한 실천 방법**에 있는 것 같아요. 사회가 변하면 사람들의 생활상이 바뀌고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복지**는 계속해서 새롭게 어떻게 지원할 지를 고민하고 방법을 구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실천에 기반이 되는 사회복지자 자체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하고 유용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7 현재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얘기하되, 대학교 과정 및 취업 준비의 시점에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는 정말 넓은 분야이고, 현장에서 일하시면 우리 삶 여기저기에 녹아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좁지는 않을거, 일이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보다는 사회복지에 대한 사명감이 있다면 각자의 소신을 가지고 진학해서 대학생 때 많이 경험하시고 활동하시면서 폭 넓게 보면서 본인의 길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일할 곳은 많습니다. 경험은 공부와는 차원이 다른 배움인 것 같아요. 꼭! 대학생 때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 모두 가지 있는 존재로서 본인과 사회를 모두 빛내는 날이 오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 본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으로 입학처 및 학과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학과] 김예지

※ 본 내용은 수험생 개인 의견으로 입학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험생활 많이 힘드시죠? 저도 수험생활 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우울한 시간이 많았는데 결국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르고 그 힘든 시간을 견뎌냈기에 지금 멋진 학교에서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내년에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파이팅!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경영학과라는 확고한 진로가 있어서 나름대로 경영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성적 이외의 제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해서 3학년 초반부터 해당 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과 경영학부를 찾아보다가 학생부에 담긴 저의 모습과 서울시립대의 경영학부 인재상과 유사하다고 느껴져서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할 당시에 본인이 생각한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고교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고 다양한 직책을 맡아서 여러 상황을 겪어보았기에 여러 상황, 여러 사람과 소통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고, 면접관과 소통하는 면접에도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약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내신 성적이었습니다. 비록 학생부종합전형이지만 성적은 평가의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했기에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작년 입결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립대학교에 지원하기에는 낮은 성적으로 느껴져 지원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립대 입학처 유튜브 영상에서 단순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가졌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은 면접의 비중이 높다고 들어서 면접이야말로 제 장점을 극대화하고 제 단점을 극복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한 저는 이 전형이야말로 저에게 적합한 전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0p 가까이 되는 예상 질문을 만들고 점심시간마다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신있던 것과 달리 실제 해보니까 제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말로 표현한다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친구, 가족, 선생님과 매일매일 꾸준히 여러 번 모의 면접을 연습하면서 긴장도 덜하게 되고 저의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예상과 달랐던 부분이 있었나요?

원서 접수 후 원서접수 사이트 점수공개에 들어가면 선택한 사람 한에서 제 성적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지원자들과 비교하면 표본이 적긴 하겠지만 현저히 낮은 등수인 것을 보고 1차 서류평가에 합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당히 합격함으로써 학생부종합전형이 단순 성적만을 중요시한다는 제 생각은 편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영학부의 인재상에는 도전정신을 가진 학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은 학생부에 기록이 되며 지원하는 학과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공동체 생활에 열심히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학생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학과와 관련된 과목에 더 신경을 쓴다거나 학과와 연관되어 배울 점이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경험하면 해당 학과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끼리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고 교과 시간에 배운 것과 나의 진로를 연관 지어 탐구하는 호기심들이 쌓이다 보면 대학에서도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좋은 학교 생활을 하겠다는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면접때 어떤 질문 받았으며 어떻게 답변했나요?

서울시립대 면접에서 제가 받았던 질문 중 가장 당혹스러웠던 질문은 대학의 소비자층은 누구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생의 입장이었고 대학의 소비자가 고등학생과 교사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인 지금 다시 한 번 그 질문을 떠올려본다면 대학의 소비자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 취업을 목표로 한다는 전제하에 대학의 가치를 평가하는 집단은 고등학생이 아닌 대학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한 예상 면접 질문과는 전혀 다른 결의 질문이 들어와서 당황한 채로 답한 나머지 열린 시야로 질문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래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답변이었습니다.



3년간

[사회복지학과] 홍유진

꾸준히

※ 본 내용은 수험생 개인 의견으로
입학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소품에 비유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은 소품의 목적지를 정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기에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소품을 끝마치며 무엇을 배우고, 얻고 싶은지 신중하게 생각하여
행복한 소품의 목적지를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고른기회전형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고른기회전형으로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했습니다. 고3 7월 기말고사를 마무리하고 여름방학 동안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대학을 조사하며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 등을 돌아보며 예전 합격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저의 성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 등 다른 전형에 원서를 넣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학생부종합전형, 그중에서도 지원자격이 되는 고른기회전형으로 지원했습니다. 고른기회전형으로의 지원을 고민하는 학생 분들은 타 전형보다 뽑는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많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교에 비해 서울시립대학교는 고른기회전형으로 뽑는 학과도 다양하고 뽑는 인원도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지원자격이 되신다면, 혹은 저처럼 타 전형으로 넣기에 성적이 애매하신 분들은 해당 전형을 기회로 삼아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른기회전형에 지원할 당시에 본인이 생각한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제 강점은 '3년간, 꾸준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자치회 활동을 3년간 꾸준히 했습니다. 코로나19 전후로도 활동했고, 이를 통해 쌓인 경험들은 단순히 학생부뿐만 아니라 면접과 자소서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학생자치회 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대단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즉, 학생자치회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3년간, 꾸준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활동이건 오랫동안 해온 활동들이 있다면 굳이 '나 성실해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학생 여러분의 '근면성, 성실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어 강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꾸준히 한다면 당연히 그로 인한 경험과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저의 약점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성적'일 것 같습니다. 3년간 꾸준히 학생자치회 활동을 하다 보니 오히려 너무 집중한 나머지 성적을 신경 쓰지 못해 성적이 낮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주요 과목 성적이 낮아 아쉬움과 불안감이 컸습니다. '성적'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기에는 한계점이 많았습니다. 지나간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늦게라도 성적을 올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 활동과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요 과목 중 영어 성적이 특히 낮았는데, 영어 말하기, 에세이 쓰기 대회 등에 열심히 참여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과목의 성적을 복구하기 어렵다면, 낮은 성적이라도 해당 과목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관련

활동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특에서 수업 시간에 다른 내용 중 궁금증이 생긴 부분을 탐구하거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극복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알아봤다, 탐구했다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과정, 마무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며 구체적인 성과를 냈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른기회전형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고른기회전형은 면접형 학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생기부 준비,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연습 등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학생부는 '나를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하며 작은 부분까지도 신중하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해당 전형을 준비하며 가장 부담을 느꼈던 부분은 '면접'이었습니다. 평소 말하기 실력과 습관도 중요하지만 글쓰기, 말하기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의 요점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정해진 시간 내에 말하는 것을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면접형 학종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아마 면접에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 생각됩니다. 효율적으로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말하기를 연습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편한 자리에서 학생부를 바탕으로 다양한 질문을 주고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선생님과는 실전 연습을 위주로 진행하고, 자신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스스로 체크하며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때 어떤 질문 받았으며 어떻게 답변했나요?

질문 내용이 상세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꼬리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꼬리 질문은 'A라고 답한 이유는 무엇이지?', '그렇다면 B는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식으로 특정 답변 내용에서 파생된 질문을 하거나 반대의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학생부 내용을 작은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실전 연습에서 받은 질문을 상세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황하여 아무 말을 뱉는 것보다 면접관님께 양해를 구하고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진 뒤 정리된 내용을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꼬리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을
수능날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 [교통공학과] 손현웅

※ 본 내용은 수험생 개인 의견으로
입학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긴장될지 잘 압니다.
경험에 보지 못한 일이니 더욱 그렇겠지요.
하지만 그때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 자꾸 미련만 남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남은 기간 열심히 붙태우고 후회없는 마음으로 같이 대학 생활을 즐겨봐요!

정시모집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정시모집 수능전형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수시는 진로가 확실한 사람들이 주로 지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에 목표로 했던 진로와 다른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능밖에 없다고 생각해 수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지원한 교통공학과는 서울시립대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 서울시립대학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시모집에 지원할 당시에 본인이 생각한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수능에서 탐구과목이 강점이라 생각하고 국어와 수학을 약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 수능을 쳐보니까 약점이라 생각한 국어, 수학은 성적이 준수하게 나왔지만, 오히려 자신 있던 탐구과목에서 평소보다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살짝 당황하기도 했지만 지원할 대학들을 찾아보니 운이 좋게도 서울시립대학교는 과목별 반영비가 국어와 수학이 비중이 크고 탐구과목의 비중이 적어서 저에게 불리하지 않고 유리한 편이었습니다. 어차피 수능 점수는 이미 확정된 상황이고 이처럼 수능 점수도 대학마다 반영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 본인에게 잘 맞는 대학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 저는 특히 수학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 중 거의 대부분을 수학에 집중했었습니다. 고민을 해도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 답안지를 참고해 풀어보고 관련 개념을 다시 복습하고 다른 풀이 방식으로 다시 풀어보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오답노트를 만들어본 것이 실제 수능에서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 중 기억에 남거나
수험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6월 모의고사를 보고 9월 모의고사를 앞둔 시점에서 6월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점에 우선순위를 두며 공부 시간을 적당히 분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하는 실수가 자신 있다고 생각되는 과목을 오랫동안 공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9월 시험에서 약한 과목은 성적이 올라도 자신 있던 과목에서 생각보다 부진하는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1달이나 1주 단위로 대략적인 계획,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게 하루씩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하루 목표는 반드시 할 수 있는 만큼만 세우는 것이 좋아요. 그 날 목표를 다 했을 때의 성취감이 다음날 공부를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거든요.

수능 시험장에서의 마음가짐

주변에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니 저는 고3때 수능이란 시험이 마치 제 인생을 결정짓는 시험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너무 긴장해서 제 평소 실력보다 낮은 결과를 받았었습니다. 저는 수능을 3번 봤습니다. 원하는 과에 가지 못해서 1번. 진학한 학교에 만족하지 못해서 또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 번 수능을 응시하면서 깨달은 것은 시험에서 긴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실력을 발휘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았지만 최대한 긴장하지 않도록 노력해 봐요. 개인적으로 긴장하지 않는 좋은 방법은 평소 생활 습관을 수능날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소에 수능날 시간에 맞게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아무썩에 쓸모없어 보일지 몰라도 정말 긴장될 때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들은 정말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능과 비슷한 생활리듬을 만들면서 최대한 수능에 익숙해진다고 생각하면 덜 긴장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소하다면 사소하지만 수능시험 중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들을 한 번씩 하게 될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평소 수능시간에 맞게 생활해 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갑자기 가고 싶어지더라도 너무 당황하지마시고 다녀오세요! 저도 수능치다가 화장실을 다녀와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고 오히려 다녀오니 속이 시원하니 못 풀고 넘어갔던 문제들의 풀이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재상과 나는
무조건 꼭 맞는 사람

[경영학과] 허은세

※ 본 내용은 수험생 개인 의견으로 입학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만약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지원할 학생이라면 이번 여름에는 고등학교 생활을 내가 어떤 식으로 했고 인상 깊었던 경험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자신이 지원하고자 학과와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3이라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힘들텐데 정말 끝까지 입시는 모르는 것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좀만 참고 파이팅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교와 학과에 진학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며 성적이 집중하면서도 동아리, 진로활동, 자율활동 등을 저의 희망 학과에 맞추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학생부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지원할 때 성적만으로 대학을 가는 것보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고, 얼마나 희망 학과에 관심이 있는지 등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할 당시에 본인이 생각한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제 강점은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관을 상대로 질문에 답하는 것은 자신이 있었지만 때때로 내용의 깊이가 아다고 느껴졌습니다. 깊이 있는 답변을 위해 희망 학과와 학과에 대해 많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입학처 홈페이지, 경영학부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며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서울시립대학교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면접 영상 등을 시청하기도 하고,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면접 질문을 검색하여 모의 면접을 해보기도 하며 면접을 대비했습니다. 학생부에는 저의 경험이 담겨 있긴 하지만 자세하게 담겨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활동에 대한 예상 질문을 창의, 동아리, 독서, 교과 부문으로 나누어 만들고 그 당시 상황을 복기하면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면접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모의 면접을 할 때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 다시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과하게 제스처를 쓰는 감이 있어서 정신 사납고 내용에 집중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스처를 적당히 쓰자고 의식하면서 모의 면접을 진행했고 면접 당일이 될 때까지 고치고자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면접이 저의 강점이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예상과 달랐던 부분이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이 활동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성적을 오히려 영향력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성적이고, 성적도 학생부의 일부입니다.

성적이 그대로 학생부에 반영되기 때문에 다른 활동보다도 성적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적을 기본으로 두고 그 다음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보여주는 동아리, 자율활동, 교과 활동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진로 일관성도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교육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을 했고, 교과 활동도 교육과 연계시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희망 학과가 경영학과로 바뀌게 되었고, 경영학과에 남들보다 늦게 관심을 갖게 된 만큼 경영 관련된 활동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것을 느껴 동아리, 교과 활동, 자율 활동 대부분을 경영학과에 연계시켜서 했습니다. 경영 관련 도서를 읽으면서 1학년 때 제가 하지 못했던 경영 관련 활동들을 2학년 때 많이 해보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2학년 때 경영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알고 다양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3학년 때는 1, 2학년에 비해서 성적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서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없기에 한 가지 활동을 하더라도 깊이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처럼 중간에 진로가 달라진다고 해도 이전에 했던 활동과 연계하여 깊이 있는 활동을 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준비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면접을 준비할 때는 일단 학생부를 보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다음 그 내용을 한글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매끄럽게 말할 수 있도록 문장을 구사해보았고 한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활동과 연계하여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통해 얻은 점과 부족했던 점, 그리고 부족한 점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를 생각해보며 제 학생부에 있는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는 학과별 인재상이 있는데 인재상에 나는 무조건 꼭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재상과 저의 학교생활을 대입해보며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도서의 제목을 들으면 바로 내용을 얘기할 수 있도록 도서 내용을 익혀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교사의 꿈을 꾸다가 2학년 때 희망 학과를 경영학과로 바꾼 것이기에 왜 교육학과에서 경영학과로 희망 학과를 바꿨는지에 대한 얘기 또한 생각해봤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립대 면접 당시 진로와 관련된 질문을 꼬리로 받았기 때문에 희망 학과 변화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생각해놓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대학의 전형은

상세히
확인하세요

[환경조각학과] 변유빈

※ 본 내용은 수험생 개인 의견으로
입학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기와 성적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술 전공인만큼 수험생에 대한 심사위원의 첫인상은 실기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수능에서 아쉬운 점수를 받았더라도 실기고사장에서 제대로 기량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은 황금 시기라고 불릴 만큼 실기 실력이 많이 느는 기간입니다.
모두 모두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열심이 마지막까지 힘냅시다!

정시 실기전형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고를 나와서 자연스럽게 조소 전공을 접했고, 미술이란 분야 중에서도 입체를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조소과를 오기를 희망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학과는 입학전형이 하나이기 때문에 정시 실기전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정시 실기전형에 지원할 당시 본인이 생각한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실기에 강점이 있고 성적이 상대적으로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 정시 실기전형은 수능과 학생부 둘 다 성적이 반영되지만, 대신 수능성적은 국어와 영어만 반영되어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학생부 성적에 자신이 있지 않아서 수능공부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실기시험은 두상소조와 인물소묘를 보는데, 타 대학과 달리 소묘 시험을 보기 때문에 소묘를 잘 하는 저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해서 형태력을 길러 두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지원했습니다.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보통 정시를 준비할 때 수능공부와 실기를 9월 정도까지 같이 병행하다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실기를 잠시 잊고 공부에만 집중하는 시기를 갖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평소에는 실기를 끝내고 집에 오면 하루에 2시간씩만 준비했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보다 상대평가인 국어를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수능에서 긴장을 너무 한 탓인지 예상 성적보다 한 등급이 낮게 나왔습니다. 불안했던 저는 실기 점수로 만회하고자 실기시험까지 남은 기간에 하루 12시간씩 매일 실기를 했습니다. 사실 정시는 성적을 더 중요하게 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합격한 것을 보니 오히려 실기 점수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시 실기전형을 준비하면서
예상과 달랐던 부분이 있었나요?

실기를 준비하면서 두상소조에 집중하다가, 입학 실기고사 3달 전에 소묘시험의 응시 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짧고 성적 반영 비율이 꽤 높은 걸 확인하고 놀라 뒤늦게 소묘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실기고사를 준비할 때도 각 대학별로 고사 주제, 종목, 비중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하는 대학이 어떻게 전형을 운영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시 실기전형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역대 실기 출제문제들을 분석해 봤을 때 두상소조가 여자로 나오면 소묘시험은 남자로 나오고, 반대로 소묘시험이 남자로 나오면 두상소조는 여자로 나온다는 패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소묘 시험에는 모자나 손 같은 기물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물들을 착용한 인물들을 그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시험을 볼 땐 소묘 시험에 반투명 안경을 쓴 남자가 출제되었는데 연습해봤던 기물이 나와 당황하지 않고 그릴 수 있었습니다. 두상소조는 모델링인만큼 닳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실기도 공부와 같이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들을 때는 선생님이 말씀해주시는 부분을 개선해서 스스로 발전 방향을 찾고자 했습니다. 실기노트를 만들어서 매일 부족한 점을 적어 두고 반복해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흥 느낌이라든지 자잘한 기교를 부리는 것과 디테일은 찾는 것이 재미있어서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큰 외곽과 안정적인 형태를 찾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더 빠르게 실력이 늘었습니다.





논술도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간정보공학과] 공인석

※ 본 내용은 수험생 개인 의견으로
입학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립대를 삼 반수생일 때 합격하여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많다면 많을 수 있었으나 목표하던 대학을 가고 싶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도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N수생분들이 이 나이에 내가 수능을 공부해도 될까,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기보다는 올해는 꼭 해내겠다는 마음으로 독하게 공부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역분들은 이번 여름방학 때 코로나와 더위로 인해 여름방학에 축 쳐지고 지치실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하루 이틀 정도 시원하게 재워놓고 다시 공부에 매진해서 내년에 대학에 합격해서 과 잠바를 입고 캠퍼스를 거닐고 있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를 목표로 하는 모든 수험생분들 힘내세요!

논술전형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지역 내에서 내신을 따기 조금 힘든 고등학교라고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내신을 관리하려고 나름 노력하였으나 교과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터라 정시를 노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시만 노리기에는 6장의 수시 지원 카드가 가까웠기에 논술이라는 전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논술전형에 지원할 당시에 본인이 생각한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서술형으로 글을 적는 것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학교 시험 및 수학 경시대회 같은 것을 자주 접하여서 수학 문제를 풀고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학 실력 자체는 저의 약점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모의고사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잘 칠 때는 1~2등급이 나올 때가 있었지만 이 또한 찍어서 맞춘 문제들이 있었고 찍은 문제들을 틀리면 3등급, 낫게는 4등급까지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논술과 수능은 유형적인 측면에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으나 같은 교육과정에서의 수학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기에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능 수학 공부를 좀 더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논술전형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내신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논술을 고등학교 2학년 말부터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내신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내신을 1순위, 수능을 2순위, 논술을 3순위로 두어서 공부하였습니다. 내신이 아무리 논술전형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논술 점수가 같을 때 내신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손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내신을 받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특히 논술을 수능 전에 치는 학교이며 수능 최저기준이 없어서 경쟁률과 응시율이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생이 경쟁률에 겁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논술 전형은 원래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허수들도 많으므로 알짜배기 경쟁률은 생각보다 낮으므로 경쟁률에 먼저 겁을 먹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서울시립대 논술에 대해 살펴보자면 수학 논술이라 수학 4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논술은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마다 대략적인 유형이 반복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립대는 4문제 중 한 문제는 확률과 통계 유형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확률과 통계 공부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 외로 계산 문제와 그래프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라고 생각이 들 때는 계산과정을 꼭 연습장에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풀이 과정을 적으면서 푸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 한번 계산할 때 틀린 부분을 빨리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프 문제도 대략적이기보다는 범위에 맞춰서 실제 그래프와 같게, 세밀하게 그려서 풀다 보면 접근이 조금 더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가다 증명 문제도 나오게 되는데 계산에 기반하여 사실임을 증명하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게 되므로 증명 문제라고 겁먹지 말고 차분하게 계산 위주로 증명을 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논술은 답안지에 적을 때 답안지를 보는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니라 제삼자인 채점자가 답안지를 보고 채점하는 것이기에 최대한 바른 글씨로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 답안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저는 서울시립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든 기출문제가 현재 교육과정에 맞다고 생각이 들면 다 풀어보고 해설을 확인하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기출문제로 공부하다 보니 시험장에서 나온 시험지에 익숙함이 느껴졌고 시험지의 유형에 익숙함이 느껴져 긴장을 적게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논술은 최근 3개년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하시고 시간이 여유가 되신다면 이전년도의 기출문제를 풀어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학습플래너를 작성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세요
[행정학과] 염미예

※ 본 내용은 수험생 개인 의견으로
입학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목표를 이루고 나면 정말 뿌듯합니다. 내가 바라던 곳에서, 바라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하며 수험생 생활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지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고등학교 생활이기도 하고 가장 힘들 때라 가장 소중하고, 오래 힘을 줄 수 있는 추억을 만들 기회이기도 사진도 많이 찍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쉬는 것이, 슬럼프가 오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니 가끔은 자신에게 휴식도 주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지역균형선발전형(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 두 가지 전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표로 했던 1순위 학교가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였기에 제가 지원할 수 있던 모든 전형에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은 불합격했고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에
어떻게 준비하였나요?**

지역균형선발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교과성적과 수능최저학력기준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저는 모의고사로 최자를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많았고 내신 평균이 예전년도 합격선에 근접하였기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과 비교하면 조금 더 자신 있었습니다. 특히 1학년 때 건강상의 이유로 결석을 많이 하면서 학생부교과전형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모의고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직 선택과목이 나누어지지 않는 1학년 방학에는 모의고사 위주로, 학기 중에는 교과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내신도 수능도 기본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의 기본기를 잡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선택과목이 나뉘는 2학년 때는 방학에도 내신 공부에 집중하였습니다. 과목 선택 시 내신 등급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는데 공부하다 보니 흥미를 느끼는 과목이 생겨서 원래 계획한 수능 선택과목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수능을 중요하게 준비하여야 하는 3학년 때에는 공부 시간을 최대한 늘려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를 항상 병행하였습니다. 저는 인문계열이라 수능최저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등급 합 7을 맞추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약한 과목을 빼고 국어, 영어, 탐구 위주로 준비하였습니다. 주변에서 ‘교과는 수능 날 망하면 끝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그럴수록 흔들리지 않고 점수를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만들고 수능 당일도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루틴에 맞추어 생활하였습니다. 지원할 학교를 확실하게 정하고 나니 해당 학교에 맞게 3과목만 준비하면 되었기에 약한 과목인 수학은 최소한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원서접수 후에는 수능 성적을 안정권으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을 준비하면서
예상과 달랐던 점이 있었나요?**

내신 성적 부분에서 제가 재학했던 학교 특성상 성적 분포가 상위권과 하위권에 인원이 몰려있고 중간이 비어있는 편이라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는 표준점수가 아닌 단순 등급으로 합불이 나뉘는 교과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많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교과전형에서 이런 성적 분포의 영향이 사실은 소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을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저는 학생부종합도 준비하였기 때문에 교과 공부 외에도 비교과 활동을 준비하여야 할 때도 많고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꾸준히 공부하기 위해서 일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느껴서 등교 후 가장 먼저 학습플래너를 작성하고 학교에서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하여 학교에서 끝낼 공부와 방과 후 공부할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하고 공부할 양을 정하는 것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또한,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는지, 총 공부 시간은 몇 시간인지, 몇 시간 집중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에 앞으로의 공부 계획을 짜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정말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서울시립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거나 시립대생 브이로그, 시립대 입학처 유튜브 채널에 있는 동영상 등을 보고는 했습니다. 나도 꼭 이 학교의 학생이 되어 이런 활동을 해야지 다짐하며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에서는
서류 어디서나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영학과] 문영진

※ 본 내용은 수험생 개인 의견으로
입학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8월말쯤 학생부도 마감하고 나면 면접은 먼 이야기 같을 텐데 지금 느슨해지면 절대 안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기에 목표 순위를 정해서 내가 지금 집중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파이팅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저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 점수, 봉사, 수상, 독서 등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보고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전형이기에 경영학과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저는 전공과 부합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저의 강점을 더욱 어필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학교 활동이 단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단 보다 더 큰 저의 꿈을 위한 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저의 꿈과 대입을 한 번에 채기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할 당시에 본인이 생각한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강점은 학생부와 전공적합성이 높았던 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경영학과라는 구체적인 학과를 정해두고 그에 맞추어 학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각각의 과목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어떻게든 경영과의 연결고리를 찾아 쓰기 위해 노력했고 발표를 할 때면 경영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저의 생각을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점이 학생부에 잘 담겨서 높은 전공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내신 점수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을 평가하지만 아무래도 내신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 상황이 겹쳐 2학년 2학기 때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대입을 준비하면서 학생부를 보면서 2학년 때 혹은 가라앉은 내신 점수가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면접이었습니다. 저는 입시를 하면서 딱 서울시립대만 면접을 봤기 때문에 유사한 경험이 없었고 긴장을 쉽게 하는 편이라 질문에 명량한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저 스스로 가장 다행스러웠던 부분은 문제점을 빨리 파악했던 것입니다. 3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내려간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정말 마지막 내신인 만큼 다른 내신 시험보다 더 많이 노력했고 결국 흔히 말하는 나이키 곡선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대비하며 입학처 유튜브에 올라온 서울시립대학교 전공별 합격자 면접 영상을 문,이과 구분없이 거의 몇십번씩 돌려보며 꼬리 질문에 대처하는 방법,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질문하는지를 분석해서 예상질문지를 작성해보고 최근 사회적 이슈들을 찾아보며 답변과 이어볼 생각도 해봤습니다. 모의면접은 주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가 한 번도 수업을 듣지 않은 선생님께 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익숙한 분위기가 형성되면 긴장된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면접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친구, 선생님, 가족 모두 부탁해서 다양한 사람에게 면접 시뮬레이션 많이 진행해보며 학생부에서 어필하고 싶은 부분을 답변에 녹여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면접 때 어떤 질문 받았고, 어떻게 대답했나요?

면접 당시 면접관님이 너무 친절하게 진행해 주셔서 긴장을 풀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질문에는 다른 답변이 더 좋았을 것 같고 다른 답변은 제외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특히 기억나는 질문은 사회문제탐구대회 수상을 통해 본인이 얻게 된 것에 대해 말해보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저는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잘 몰랐다는 것을 반성하고 우리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면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면서 공적 경영을 체험해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과정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규모와 예산안에 대해 스스로 분석해 보며 경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주로 제가 작성한 자기소개서에서 질문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면접을 할 때에는 자기소개서에서는 한두가지 질문만 하시고 나머지 질문은 거의 자기소개서에 적지 않은 학생부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서류 어디서나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서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접관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경영학과] 김소희

※ 본 내용은 수험생 개인 의견으로
입학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준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저 또한 여러분들처럼 3년간 매일 지을 수 없는 불안함으로 반복되는 일상에 고스트러웠어요.
하지만 한 학기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20년 평생 최선을 다해 본 시절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보람, 힘들었을 때 의지했던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 등이 미화되어 어느덧 고통보다는 추억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아직 이 말에 공감하지 못하시겠죠? 혹시 입시로 불안해하는 자기 모습이 싫다고 느껴지거나,
그동안 더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로 죄책감을 느끼는 자신의 모습이 싫은
수험생분들이 계신다면 누구나 그 시기에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기보다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잘 버티고 있는 자신을 대견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전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행보를 멈추지 않고 조금만 더 버텨서
꼭 만족스러운 결실을 맺어 제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험은 곧 자산이다’는 말은 19년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면서 제게 가장 공감되는 말과 동시에 저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내신만을 정량 평가하는 교과 전형과 코로나로 인해 재수생이 비중이 커진 정시 또한 목표인 인서울을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해 정성평가의 비중이 높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할 당시에 본인이 생각한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저의 강점은 학생부였기 때문에 학생부가 비중 있게 평가되는 대입 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공과 연계된 활동을 하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현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는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시사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자기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학급 내 토론을 선도하여 지속해서 급우들과 시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며 사고의 확장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같은 서류는 이렇게 나름대로 강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적으로 면접 준비와 경험은 부족했기 때문에 면접이 제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면접 준비가 부족했던 이유는 공부와 입시로 인한 정신적인 피로로 지친 부분이 컸습니다. 서울시립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캠퍼스 투어, 대학생 브이로그 등을 보면서 언젠가 서울시립대 학생이 되어 있는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며 스스로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공부와 입시로 인한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역시 서울시립대 입학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모의 면접 등 영상 등이 서류 기반 면접 질문의 깊이와 구체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긴장감 해소 및 본인 서류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활동 배경, 내용, 느낀 점 등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학생부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학생부에 적혀 있는 모든 활동을 정리하고 각 활동별로 느낀 점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주요 개념을 정리하며 학생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면접 때도 평소처럼 말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해소하고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서울시립대 면접 방식인 2:1로 급우들과 돌아가며 면접관과 면접자가 되어보며 예상 질문을 만들고 주고받으며 면접 분위기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면접 준비 과정 중 면접관을 경험해보면서 눈 마주침, 적절한 손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으며, 면접관이 어떤 것을 궁금해 하는지도 간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자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관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예상과 달랐던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내신은 정량평가, 비교과는 정성 평가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객관적으로 보이는 지표가 내신이므로 대부분 절대적으로 내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저 역시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내신, 비교과 구분 없이 학생부종합전형은 정성평가를 하는 전형이며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면접과 같은 만회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창체나 세특 등의 기록들도 중요하게 정성평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나치게 정량적인 지표에만 너무 고심할 필요 없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 탐구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이 내신만을 절대적인 지표로 고려해 대학을 낮춰 쓰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시 6장을 모두 소신껏 우주상향으로 쓰는 것은 무모한 일이지만, 6개 중에서 1~2개는 소신껏 지원하셔서 자신이 쓰고 싶었던 대학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을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붙으려고 6개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학생부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1학년 때는 활동의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무작정 모든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활동 배경, 느낀 점 없이 내용만을 단순 나열식으로 기재한 학생부를 보고 문제점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2학년부턴은 전공 관련 시사 내용과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동아리 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과 연계해 심화 탐구 및 활동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학생부의 내용은 각 교과목 담당 및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시기 때문에, 학생 본인만큼 활동에 대해 모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활동 주제 및 키워드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생님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입시 관련 팁과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매일매일 꾸준히
[컴퓨터과학부] 이한결

※ 본 내용은 수험생 개인 의견으로
입학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시 입시생들에게 가장 힘든 기간이 7월, 8월일 것 같아요. 저는 매일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는 순간 욱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보니까, 오히려 그걸 즐기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욱부터 튀어나올 정도로 어제도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마음 먹으니 힘이 더 나더러구요. 각자 나름대로의 휴식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정말 정말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하루 정도 정말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그 하루가 정말 소중한 수 있고, 금 같겠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들 때 한 공부는 머리에 잘 남지도 않고 피로만 누적되더러구요. 그러니까 정말 힘이 들 때는 쉬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학교 참 좋은 학교예요! 다들 열심히 준비해서 학교에서 기쁜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하이팅!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시립대학교 교과 전형(지역균형선발전형)은 다른 대학교의 교과 전형과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과 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 전형에서는 수학, 과학 과목의 성적만을 합산하여 내신 등급을 계산하는 타대학들과 달리, 서울시립대학교는 국어, 역사, 사회, 정보 등의 과목을 포함하여 전과목 내신 등급을 산출하였습니다. 저는 수학, 과학 같은 주요 과목들 이외에도 국어, 사회 등과 같은 과목들의 성적 또한 높았기 때문에 타대학의 교과전형보다는 서울시립대학교의 교과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더 경쟁력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교과전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을 때, 단지 상위 10개 대학 중 하나라는 이유로 합격하기 정말 힘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수능최저기준을 위한 공부를 하고, 지난해 입결을 살펴보면서 수능최저기준 맞인지 생각보다는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교과전형 점수산출방식이 2021년도에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사실 지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수산출방식이 변경되었다는 정보를 알게되어서 나름 상황을 분석했을 때 올해 입결도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초반부터 교과전형 지원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초반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수능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내신 공부와는 결이 다른 수능 공부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잘 안나오는 것이 저의 약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수능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교과전형의 경우 당시 3합 7이라는 수능최저기준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수능의 모든 과목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자신 있는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탐구 과목 2가지를 모두 공부하기보다는 평소 자신 있던 지구과학1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여 수능최저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름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선택과 집중이 모험적인 전략이었다는 것을 합격 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구과학1 과목을 수능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한 과목만 준비했기 때문에 들여다보면 상당히 모험적이었습니다. 만약 선택과 집중을 하려 한다면 한 과목에 대한 실력과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 시험과 내신 시험 준비, 그리고 학생부종합도 아예 버릴 수 없기에 학생부 관리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꾸준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바짝 해서 수능 공부를 썩 다 끝내버려야지! 라거나, 오늘은 국어, 수학 공부만 해야지! 같은 식의 전략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공부를 매일매일 하면서 남는 시간에 학생부 활동을 채우거나 내신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교적 피로감이 덜한 아침, 점심, 오후 시간에 수능 시간표에 맞춰 수능 공부를 하고, 집중이 잘되는 밤 시간에 학생부, 내신 공부를 틈틈이 하여 집중도 있게, 단기간에 과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에 지원할 당시에 본인이 생각한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서울시립대학교 교과전형은 주요과목 뿐 아니라 전과목 내신 등급을 대상으로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과목 내신 등급이 고루 높은 저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나 반영 비율이 높은 국어, 과학 과목의 내신 등급이 높았던 것이 저의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같은 교과전형이어도 대학마다 점수 반영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저는 사실 학생부종합전형도 준비했기 때문에 3학년 2학기까지 세부능력특기사항, 교내대회, 학교 내신, 자소서 등을 준비하면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려고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

서울시립대학교



同